통도사, 자장 율사 '지계정신' 기리다

10월 11일, 개산조당 및 설법전서
자장율사 영고재 및 법요식 봉행
영축문화축제 전통불교문화의 장
영축장학금 3500만 원, 인재불사
"개산정신 및 성보가치계승 발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통도사는 10월 11일 개산조당 및 설법전에서 '개산 1379주년 영고재 및 법요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종정 성파 대종사가 영고재에서 헌다하는 모습.

영축통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개산대재를 봉행하고 개산조 자장율사의 지계(持戒) 정신을 되새겼다. 특히 9월부터 진행된 영축문화축제를 통해 불교 전통문화를 향유하는 축제의 장을 펼쳤다.

통도사는 10월 11일 개산조당 및 설법전에서 '개산 1379주년 영고재 및 법요식'을 봉행했다. 개산 의식인 영고재는 개산조당 앞에서 봉행됐으며, 설법전에서 열린 법요식에는 종정 성파대종사, 전 방장 원명 대종사,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 주지 현덕 스님, 율주 덕문 스님, 강주 인해 스님을 비롯해 나동연 양산시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통도사는 매년 개산일을 맞아 영고재와 개산대재 법요식을 봉행하고 이에 앞서 영축문화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해는 통도사 주요 말사 소속 합창단들이 동참하는 제1회 통도사 합창제가 열렸으며, '인터랙티브 종이 공예 체험'과 '통도툰'을 핵심으로 젊은 세대와 소통했다. 이 외에도 삼보이운, 괘불헌공, 전국 초중고 사생실기대회, 괘불특별전, 국화장엄, 나도 작가다(사진전), 통도사 승가대학 서예전이 열려 풍성함을 더했다.

통도사는 개산대재 법요식에서 대회 및 전시 참여자를 시상해 격려했으며 영축장학금을 수여해 인재불사로 축제를 회향했다. 서예전에는 통도사 승가대학 대교반 덕민 스님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대교반 성제 스님, 사교반 영우 스님이 수상했다. 일상사진전 나도 작가다의 수상자는 통도사 포교과장 수진 스님 외 5명이 수상했다. 제3회 전국사생대회 대상은 곽서영 물금고등학교 학생이 수상했다.

영축장학금은 통도사 재적승 가운데 수행 및 학업에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이며 이번 해는 박사 5명, 석사 8명, 학사 3명을 포함해 율원, 학림, 승가대학원 스님 22명과 강원 4명 등 총 42명의 스님에게 3500만원이 전달됐다. 또 통도사 및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자를 선정해 공로패 및 감사패를 수여했다. 공로패는 이다감 양산시 문화관광과장, 최은호 양산경찰서 치안정보계 정보관, 김영학 양산소방서 소방장이 수상했으며, 감사패는 김갑용 불자가 받았다.

주지 현덕 스님은 "자장 율사의 정신을 받들어 통도사가 창건된 이래 수많은 역대 조사님들과 불자들이 인연을 맺어 수행하고, 기도하며, 부처님 가르침의 법등을 밝혀왔다. 과거의 역사와 가치들이 사라져 가는 현시대 속에서도 통도사는 올곧게 역사와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며 "1379년 전 새로운 불국토를 세우고자 쉼 없는 발걸음으로 영축산 도량에 찾아든 자장 율사의 개산 정신과 성보의 가치를 지켜 불교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다음 세대에 계승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발원사, 제3차 수륙무차평등대재

10월 10일, 발원사 경내



발원사(주지 호법 스님)가 10월 10일 경내에서 나라의 평안과 국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제3차 수륙무차평등대재'를 봉행했다.〈사진〉

주지 호법 스님은 "법계의 모든 고혼과 영령들이 '수륙무차평등대재'의 의식에 담긴 생사가 본래 없다는 위대한 가르침을 깨달아 영원한 평안을 얻길 기원한다"며 환영사를 전했다.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큰스님들과 내빈들 덕분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들과 유주무주 영혼들께서 마음의 인연관계를 깨우치시길 바란다"며 영가법문을 전했다.

팔공총림 동화사 동화복지재단 이사장이자 용천사 주지인 지거 스님은 자작곡인 '극락왕생발원가' 음성공양을 올리며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김해 사티아라마 붓다팔라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지원장 혜도 스님, 중구연합회 회장 하림 스님, 사상구연합회 회장 성림 스님 등이 함께 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자비암, 동래구불교연합회장 취임식

10월 13일, 산신재 및 회장 취임식



마안산 자비암(주지 자관 스님)은 10월 13일 경내에서 동래구불교연합회 신임 회장 취임식과 산신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동래구불교연합회 회장 자관 스님, 부회장 정현 스님과 법관 스님 외 연합회 회원스님들과 서지영 국회의원, 장준용 동래구청장 등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1부 행사로 산신재 및 회장 취임식이 2부 행사로는 노래자랑 및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산신재에 이어 진행된 회장 취임식은 △삼귀의 및 반야심경 △부회장 인사 △회장 취임인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동래구불교연합회 회장으로 새롭게 취임한 자관 스님은 "대덕스님들의 원력과 사부대중의 화합으로 동래구불교연합회가 부산불교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열심히 정진하겠다"며 취임사를 밝혔다.

한편, 2부 행사는 신도들의 노래자랑과 지역 가수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광명사 신도회 창립 55주년…"청정 불성 담은 광명 도량"

10월 13일, 3층 지관전서 기념법회

국태민안 및 인류평화 기원
광명문화예술제와 들차회도



부산 천태종 광명사가 10월 13일 경내 지관전에서 '국태민안기원 광명사 신도회 창립 55주년 기념 법회와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광명문화예술제'를 봉행했다.

부산 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 스님)가 10월 13일 경내 지관전에서 '국태민안기원 광명사 신도회 창립 55주년 기념 법회와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광명문화예술제'를 봉행했다.

광명사는 부산 경남 천태종의 시초가 된 중요 사찰로 부산에서 신도회가 창립된 후 처음으로 설립한 도량이다. 광명사를 토대로 삼광사, 정법사, 해영사 등 천태가람이 부산과 경남 일대에 차례로 건립됐다.

광명사는 신도회 창립 법회를 봉행하고 "청정한 불성이 드러나는 광명의 도량으로 아름다운 진리가 새벽별처럼 빛나는 곳"이라 찬탄했다.

법회에는 천태종 원로원장 정산 스님, 주지 춘광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정오 스님,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해영사 주지 설혜 스님을 비롯해 백종헌 국회의원,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동참했다.

법회에서는 자비나눔 실천과 인재불사를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법회 후에는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광명문화예술제'를 진행해 축제의 장을 나눴다. 문화예술제는 '비바체 색소폰콰이어'의 식전공연에 이어 '광명연꽃동이'의 퍼포먼스, '법화 어린이합창단' 및 '광명사 법화합창단'이 무대를 선사했다. 또, '에이플러스'의 대중가요 무대와 전문 성악곡의 향연도 펼쳐졌다.

축하무대와 함께 들차회도 마련돼 차향 가득한 도량에서 시민들을 맞았다. 들차회는 광명사 경내 솔밭에서 진행됐으며 부산 삼광사 차문화회, 울산 정광사 다도회, 창원 원흥사 다도회, 한국다도대학원 부산분원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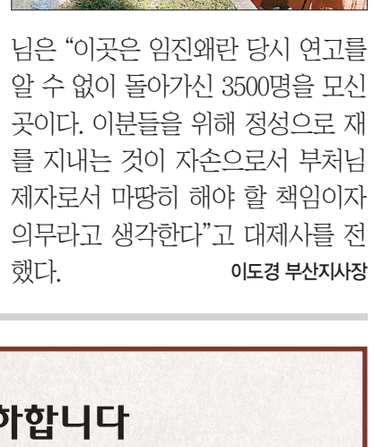
원로원장 정산 스님은 법문을 통해 "교육과 문화, 예술과 봉사 등 세상이 필요로 하는 불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전법교화의 길을 넓혀온 광명사의 공덕이 무한하다"고 격려했다.

춘광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광명사가 지난 5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중생의 고뇌를 끊어주고 고난을 면하게 해 주었는지는 여러 불자님들이 스스로 증명할 것"이라며 수행과 정진을 당부했다.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은 축사를 통해 "광명사가 걸어 온 55년의 역사와 앞으로 나아갈 미래 100년에도 많은 이들에게 지혜와 자비를 전하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도량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임진의총 순절용사 추모 위령재

10월 11일, 동래구 금강공원 내



동래구불교연합회(회장 자관 스님)는 10월 11일 부산 금강공원 내 동래임진의총에서 '임진왜란 432주기 임진의총 순절용사 추모 위령재'를 봉행했다.〈사진〉

위령재에는 동래구불교연합회 회장 자관 스님, 부회장 정현 스님을 비롯해 연합회 소속 스님과 장준용 동래구청장, 탁영일 동래구 구의장 및 불자들이 함께 했다.

동래구불교연합회 회장 자관 스님은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 연고를 알 수 없이 돌아가신 3500명을 모신 곳이다. 이분들을 위해 정성으로 재를 지내는 것이 자손으로서 부처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대제사를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대한불교 원융종

圓融宗 四大綱領

圓融無碍 一O相 眞理體得
우리종도는 원융무애한 일원상의 진리를 스스로 체득한다.
圓滿融通 人格完成
우리종도는 원만 융통한 대인상의 인격을 수련 성취한다.
圓通融和 道義社會建設
우리종도는 원통융화한 이상 사회의 실현에 적극 헌신한다.
圓融會通 理想世界實現
우리종도는 원융회통의 참된 평화 세계건설에 이바지한다.

원융종 종도일동

총무원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180-6 (구로동)
총본산 : 원융사 전화 02)853-0430~1 팩스 02)857-5094

※원융종 종도 여러분 사.암 등록증과 임명장, 신분증에 유효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등록증, 임명장, 승려증은 필히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삼론종

종 정 혜승
전계화상 혜공 승정원장 진봉

총무원장 해불
종회의장 지경
종회부의장 혜인
교육원장 법지
교육부원장 묘현
총무부장 근혜
교무부장 자원
사회부장 도일
규정부장 조영
교리연구원장 남륜
수선원장 응진
사정부원장 성우
포교원장 해인
포교부원장 지연
문화원장 혜관
문화부원장 마애

각 교구 종무원장
서울·경기 종무원장 묘현
경남·울산 종무원장 해산
경북·대구 종무원장 지화
전라·남북 종무원장 도암
충남 종무원장 성현
충북 종무원장 정연
강원 종무원장 도광

종도일동

총무원 주소 : 충남 서천군 문산면 문고길203번길 103 천용사 전화 043)878-0109